

2008년 개원

한의학의 과학화 · 산업화 · 세계화 주도

글 | 김유근 _ 부산대학교 기획협력처장 planning@pusan.ac.kr

국 내 유일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부산대학교에 설치되어 2008학년도에 공식 개원한다. 부산대학교는 2006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으로 선정되어 2008년 3월에 개원하여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은 물론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주도하게 된다.

부산대학교는 이를 위하여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발, 교수 확보, 학생 모집 등 제반 출범 준비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한의학전문대학원, 한방병원, 한·양방협진센터 건립 등 하드웨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의학 R&D 중심 전문대학원으로 육성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의료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사립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한의과대학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한의학 R&D 중심 전문대학원으로 육성된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4년 과정의 한의학과와 6년 과정의 복합학위과정으로 운영된다. 이와 별도로 일반대학원의 정원 20명을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배정, 한의과학과를 개설하여 비의료 연구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를 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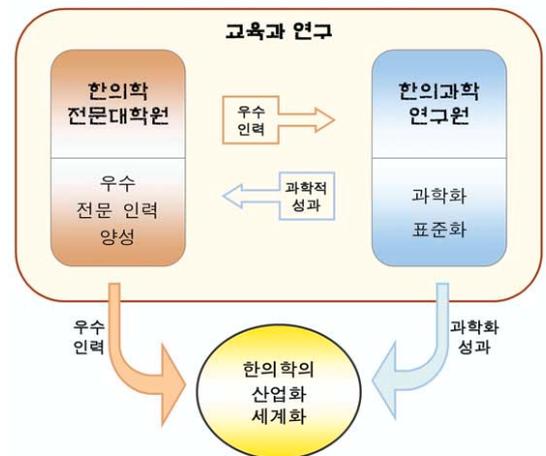
인프라 확보 계획

부산대학교는 이를 위하여 현재 첨단의료 허브로 조성중인 양산 캠퍼스에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한방병원, 한·양방협진센터, 대규모 종합임상실험센터를 건립한다.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사는 올해 착공하여 2009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2009학년도부터 한의학전문대학원 전용공간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방병원은 1차적으로 200병상 규모로 2009년에 완공되며, 현재 신축 중인 간호센터 중 70병상을 한방용으로 활용하는 한편, 추가 100병상을 다음 단계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현재 양산캠퍼스에 건축 중인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제2대학병원, 치과병원, 어린이병원 등과 어우러져 한·양방협진을 주도하면서 세계적인 의생명과학의 메카로 조성된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방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한의학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의생명과학 특화벨트 구축

부산대학교는 밀양캠퍼스와 연계한 의생명과학 특화벨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밀양캠퍼스에 한약재연구소, 자연치유연구소, 한약재 표준화 재배특구, 한약 및 식품산업연구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의학의 국제화를 위하여 중국 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 심양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추진체계

약대, 일본 도야마대학,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등과 국제교류 및 산학협력을 통하여 국제공동연구와 한방의 산업화를 선도하는 의생명 국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또한 한방병원내에 협진센터를 설립하여 한·양방협진모델을 개발하고 임상연구소와 임상연구팀이 의학전문대학원 및 대학병원 연구·의료진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한의학의 과학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특히, 한의학의 산업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상남도, 양산시, 밀양시, 산청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 의약관련 산업체와의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학생 선발 등 개원 준비 박차

부산대학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출범과 설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한의사협회, 의학·한의학 분야 전문가,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2008년 3월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수진의 연차적 확보 계획에 따라 1차로 올해 10명을 공채하고 2008년과 2009년에 추가 선발을 통하여 50명의 우수교수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생 선발을 위하여 지난 2월 8일 신입생 모집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모집정원 50명 가운데 일반전형으로 28명, 특별전형으로 22명을 선발한다.

한의학전문대학원 지원 희망자는 오는 8월에 실시되는 한의학교육입문시험(OMEET)을 치루어야 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 및 국가공인 한자능력시험 2급 이상이어야 지원서를 낼 수 있다.

일반전형은 전학년 평점평균 80점 이상과 영어능력 시험에서 일정수준(TOEFL CBT 213점 기준) 이상을 획득하고, 선수과목 4개 계열 이상에서 2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특별전형 중 자기추천형(17명)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 등의 면허 소지자와 생명과학계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제1저자 또는 주저자로 SCI(E) 논문 1편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자연계(비생명과학계)대학원 학업 우수자(5명)는 자연계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제1저자 또는 주저자로 SCI(E) 논문 1편 이상, 전학년 평점평균 90점 이상 취득, 영어능력 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 획득, OMEET 3개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전국 상위 20% 이내인 자가 지원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는 오는 10월 입학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1단계에서 OMEET와 평점평균, 영어능력, 서류평가 등을 종합해 모집정원의 2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로 심층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조감도

특별전형 합격자가 모집 인원에 못 미치면 남은 모집 인원만큼 일반전형 모집 인원을 늘려 선발할 예정이다.

한·양방 협진·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기존 사립 한의과대학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한·양의학 공동교육 및 공동연구와 한·양방 협진으로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연구결과를 산업화하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민족적 자산인 한의학의 세계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한방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분석에 주력하여 우리 국민들이 양·한방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립 한의학과 설치라는 '한의학계의 숙원' 해결 차원을 뛰어 넘어 교육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산업화 등 한의학 전반에 걸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 난치성 질환 증가,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 고조, 과학화·산업화 요구 증가 등 21세기 의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동안 11개 사립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담당해 오던 임상 중심의 한의학 인력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새로운 인력양성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한·양방협진 체제 실현을 앞당기게 된다. 이로써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의 선진화 기반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약개발, 한방의료기술의 체계화, 한의학의 세계화 등을 앞당김으로써 한의학이 중·장기적 고부가가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중의학의 세계 진출에 대응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㉔



글쓴이는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장, 한국대기환경학회 및 한국기상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한국대기환경학회 우수논문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1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한국환경과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환경과학회 수석부회장이다.